

EDU-09 사전·사후 공통평가 · 1/3

사전과 사후에 같은 역량을 확인하되, 답을 외우기보다 선택 이유를 적는다.

1. 생활세금·공적지원·금융복지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?

- ☐ A. 내 소득과 사건을 근로·사업·소비·재산·이전으로 분류한다.
- ☐ B.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.
- ☐ C.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.
- ☐ D.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.

2.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?

- ☐ A. 현재 보이는 금액만
- ☐ B. 비용·위험·기한·보호·증거
- ☐ C. 광고 순위와 후기 수
- ☐ D. 친구가 선택한 상품

3.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?

- ☐ A. 기억해 둔다.
- ☐ B.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.
- ☐ C. 계약서·설명·거래·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.
- ☐ D.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.

4.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?

- ☐ A.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.
- ☐ B.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.
- ☐ C. 신청·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.
- ☐ D.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.

5.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?

- ☐ A. 추가 차입·송금으로 시간을 번다.
- ☐ B.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.
- ☐ C.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·기한·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.
- ☐ D.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.

EDU-09 사전·사후 공통평가 · 2/3

사전과 사후에 같은 역량을 확인하되, 답을 외우기보다 선택 이유를 적는다.

6. 사례 '환급을 기대한 연말정산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올해 소득·공제자료를 확인하고 환급·추가납부 모두에 대비한다.
- ☐ B. 예상 환급액을 먼저 쓴다.
- ☐ C. 공제자료를 확인하지 않는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7. 사례 '부업 소득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소득 성격·지급명세·신고 필요를 국세청에서 확인한다.
- ☐ B. 원천징수됐으니 무시한다.
- ☐ C. 입금내역을 삭제한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8. 사례 '사업 세금 부족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예상 세금 뭇을 분리하고 신고·납부 상담을 한다.
- ☐ B. 다음 매출로 막는다.
- ☐ C. 고지서를 피한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9. 사례 '실직과 지원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고용24·복지로에서 기준일과 가구 요건을 확인하고 상담한다.
- ☐ B. 과거 글을 그대로 따른다.
- ☐ C. 대리 신청 광고에 개인정보를 준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10. 사례 '부모 부양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가구 범위·사적 이전·부양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가능한 지원을 묻는다.
- ☐ B. 현금 이동을 숨긴다.
- ☐ C. 가족끼리 빚만 늘린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EDU-09 정답과 해설 · 3/3

문항별 정답과 선택지 해설

1. 정답 A

- A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내 소득과 사건을 근로·사업·소비·재산·이전으로 분류한다.
- B. 이 선택은 '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내 소득과 사건을 근로·사업·소비·재산·이전으로 분류한다.
- C. 이 선택은 '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내 소득과 사건을 근로·사업·소비·재산·이전으로 분류한다.
- D. 이 선택은 '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내 소득과 사건을 근로·사업·소비·재산·이전으로 분류한다.

2. 정답 B

- A. 이 선택은 '현재 보이는 금액만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B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C. 이 선택은 '광고 순위와 후기 수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D. 이 선택은 '친구가 선택한 상품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
3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기억해 둔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B. 이 선택은 '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C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D. 이 선택은 '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
4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B. 이 선택은 '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C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D. 이 선택은 '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
5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추가 차입·송금으로 시간을 번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- B. 이 선택은 '연락과 서류를 피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- C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- D. 이 선택은 '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
6. 정답 A

- A. 환급은 저축이 아니라 정산 결과다. 자료 누락과 소득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.
- B. 이 선택은 '예상 환급액을 먼저 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환급은 저축이 아니라 정산 결과다. 자료 누락과 소득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.
- C. 이 선택은 '공제자료를 확인하지 않는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환급은 저축이 아니라 정산 결과다. 자료 누락과 소득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환급은 저축이 아니라 정산 결과다. 자료 누락과 소득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.

7. 정답 A

- A. 원천징수와 최종 신고를 구분한다. 소득 유형과 금액·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.
- B. 이 선택은 '원천징수됐으니 무시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원천징수와 최종 신고를 구분한다. 소득 유형과 금액·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.
- C. 이 선택은 '입금내역을 삭제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원천징수와 최종 신고를 구분한다. 소득 유형과 금액·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원천징수와 최종 신고를 구분한다. 소득 유형과 금액·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.

8. 정답 A

- A. 세금 달력과 별도 자금을 둔다. 납부 곤란 때 가능한 절차는 기한 전에 세무기관에 문의한다.
- B. 이 선택은 '다음 매출로 막는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세금 달력과 별도 자금을 둔다. 납부 곤란 때 가능한 절차는 기한 전에 세무기관에 문의한다.
- C. 이 선택은 '고지서를 피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세금 달력과 별도 자금을 둔다. 납부 곤란 때 가능한 절차는 기한 전에 세무기관에 문의한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세금 달력과 별도 자금을 둔다. 납부 곤란 때 가능한 절차는 기한 전에 세무기관에 문의한다.

9. 정답 A

- A. 공식 자격 확인을 먼저 한다. 여러 제도의 중복·우선순위는 담당기관에 확인한다.
- B. 이 선택은 '과거 글을 그대로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공식 자격 확인을 먼저 한다. 여러 제도의 중복·우선순위는 담당기관에 확인한다.
- C. 이 선택은 '대리 신청 광고에 개인정보를 준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공식 자격 확인을 먼저 한다. 여러 제도의 중복·우선순위는 담당기관에 확인한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공식 자격 확인을 먼저 한다. 여러 제도의 중복·우선순위는 담당기관에 확인한다.

10. 정답 A

- A. 가구 전체의 안전을 기준으로 상담한다. 지원 판정은 제도별 가구와 소득·재산 기준에 따른다.
- B. 이 선택은 '현금 이동을 숨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가구 전체의 안전을 기준으로 상담한다. 지원 판정은 제도별 가구와 소득·재산 기준에 따른다.
- C. 이 선택은 '가족끼리 빚만 늘린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가구 전체의 안전을 기준으로 상담한다. 지원 판정은 제도별 가구와 소득·재산 기준에 따른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가구 전체의 안전을 기준으로 상담한다. 지원 판정은 제도별 가구와 소득·재산 기준에 따른다.